

#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5월 출범

### 20일까지 8개 팀 구단주 공개모집...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기반 마련 기회로 활용

드론축구 중주도시인 전주시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오는 2025년 전주에서 개최 예정인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붐 조성과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세미프로리그 출범준비에 돌입했다.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은 '2024년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전주시 컨소시엄의 대표 사업이다.

컨소시엄에는 전주시와 캠틡종합기

술원, 국제드론축구연맹, 대한드론축구협회, 지비피, 디플레이스가 참여하고 있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세미프로리그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식 프로리그로의 전환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는 오는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출범식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제드론축구제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2024 코리아 드론축구 세미프로리

그’는 최정상의 실력을 보유한 1부리그 상위 8개 팀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체 280경기를 치르게 된다.

리그 방식은 경기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승점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올해 리그가 종료되는 오는 12월에는 드론축구 중주도시인 전주에서 우승팀 세리모니와 함께 순위별 상금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성공적인 리그 운영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8개 드론축구팀을 이끌어 갈 기업·기관(구단주) 모집에 나섰다.

특히 협회는 오는 2025년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에 따른 드론축구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과 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은 드론축구가 레저를 넘어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그 운영과 정착을 다각도로 지원해 내년에 치러질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솔선수범’

### 전주시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다짐·서약식 가져

전주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없는 청렴한 전주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 및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청렴 다짐의 날’은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 역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히 시는 반부패·청렴 다짐을 통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청렴 문화를 만들고, 일반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 △사익 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 지시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반부패·청렴 시책을 수립했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시는 △전 직원 청렴 집합 교육 △고위직 청렴 릴레이 캠페인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특별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반부패와 청렴 의식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약속”이라며 “전주시 공무원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청렴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코시티 시립어린이집 확충

### 전주시,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 에코시티에 공보육 확산을 위한 전주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전주시는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7일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문지원)와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레나 전주에코

시티 아파트는 전주시에 어린이집과 부속 시설을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과 기자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주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올 하반기에 총 4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포레나 전주에코시티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아동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농생명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키운다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7개 농생명 기업과 육성지원 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 농생명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은 1일 '2024년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등 1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지역 농생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구원은 전주에 주소를 둔 농생명 관련 수혜기업을 모집한 후 선정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장진출 상용화 지원 3개 기업(바이오엔진, 울드브릭컴퍼니, 바이오모아메디컬)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5개 기업(지에스씨알오, 유화당, 제이온,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에이제트피) △마케팅 홍보 지원 4개 기업(노아넷 바이오, 밥닥, 국민바이오, 이고장식품) △수요 맞춤형 지원 5개 기업(바이오엔진, 웰앤뷰엠티촌도가, 전주순두부, 반다크브라운, 로크)의 4개 분야이다.

이에 대해 오병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협약식에 선정된 17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1일 '2024년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등 1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과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김용일 이노케이(주) 대표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마케팅’을 주제로 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설명회

###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녹색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1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녹색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녹색중소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시정연구원과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청,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자산운용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지역 녹색중소기업들은 기업별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1:1 현장 상담을 지원받았다.

특히 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ESG 경영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해 참여기업들의 호응을 이끌



어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비즈니스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어가길 바라며, 전주시는 녹색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전주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한 전화상담(063-281-5353)도 운영한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